

검찰 특수본 “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수사”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휴대전화 확보 등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경찰도 전담 수사팀 구성...김 전 장관 집무실 등 압색·통화 내역 확보 나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김·경 각자 대규모 특별수사본부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이 자진 출두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조사 후 긴급체포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 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48시간 안(긴급체포 시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총암과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박 본부장 지휘 아래 차장검사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부장검사급으로 서울중앙지검 이찬구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20명의 검사와 30여명의 수사관을 배치했다.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위해 전담 국방부로부터 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 규모의 인원도 파견받았다.

경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8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경찰은 당초 지난 6일 전담 수사팀을 120여명으로 꾸렸지만, 30여명을 증원해 150여명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김·경이 같은 사안을 두고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특수본은 “내란·직권 남용 모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대검찰청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검찰과 함께 수사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경찰 수사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 대신 ‘내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탄핵”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 목놓아 외치다

광화문·국회앞 집회 현장 르포
영하 날씨에도 100만명 집결
구름 인파에 통신 장애도 발생
탄핵 투표 불성립에 시민들 분노

“국민에게 충구를 겨눈 윤석열은 용서받을 수 없다. 물러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국민들의 절규다. 이날 국회 앞에 모인 참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4만 9000명으로 집계됐고, 주최측은 100만명으로 봤다.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시위 현장에는 광주·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영하권 날씨임에도 햇빞과 담요 등으로 몸을 감싸고 직접 만든 손팻말 등을 들고 현장에 모였다.

8년 전 박근혜 퇴진 운동 때와 달리 촛불은 볼 수 없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각자 좋아하는 연예인 응원봉 등에 ‘탄핵’ 글자를 붙이고 거리로 나섰다. 이채연(여·23)씨는 “비록 촛불은 아니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싶어 빛이 밝은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갑자기 불어오는 인파 때문에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을 지나는 9호선은 3시간여 동안 무정차 통과했고, 일시적으로 휴대전화와 와이파이가 끊기는 등 통신 장애도 발생했다.

한강 작가의 책 제목 ‘소년이 온다’를 ‘국민이 온다’로 바꿔 시위에 나선 참가자도 있었고, ‘전국 깃발 준비 못한 사람 동호회’ 등 개인이 직접 제작한 유머러스한 깃발 등도 눈에 띄었다.

뜻을 함께한다는 연대의식으로 햇빞과 간식 등을 가방에 가득 담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당초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대부분 이날 탄핵안이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경기도 안양에서 온 이동현(여·42)씨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 오늘 국회로 나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당연하고 처벌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5시경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현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위 현장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야에서’ 등 노래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40여분 뒤 김건희 특검법 부결 소식이 현장에서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곧 육성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불성립될 가능성이 커지자 시민들은 할 말을 잃고 탄식을 쏟아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치던 한 남성은 “이게 말

이 되나. 다 제정신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황망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있었다.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시민은 귀가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국회 앞에 남아 ‘윤석열 탄핵’을 목놓아 외쳤다. 또, 인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고함치기도 했다.

언론을 통해 이날 자정까지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다시 국회 앞 시위현장에 복귀해 탄핵을 연호하기도 했다.

밤 9시 20분께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끝나자 참가자들은 분노했다. 답답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국회를 찾았다는 김기웅(57·서울 영등포구)씨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며 “국민이 아니라 당의 안위를 우선한 국민의힘은 결국 윤석열과 함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선배사이인 전진아(여·22·인천)씨와 김수진(여·24·평택), 김지우(여·21·청주), 김재은(여·24·대구)씨는 서로 지역은 다르지만 분노의 정도는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전씨는 “졸업작품을 다 끝내고 훌거분한 마음으로 쉬고 있던 중 게임이 선포됐고, 2차 게임 등 흑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모든 약속도 취소해야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탄핵은 불발됐지만 가결 될 때까지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비장함을 드러냈다.

/서울=김다인 기자 kdi@정혜원 기자 hey1@

軍통수권은 여전히尹 손에...유사시 문제없나

대비태세 불확실성 해소 필요
야당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외교를 포함한 국정 무관여를 발표하면서 국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방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통수권은 아직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군통수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관될 것지만, 그런 법적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때 대북 군사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대행(김선호 차관)이 지휘하겠지만, 김 차관은 국군통수권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사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지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려 할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도 해도 군이 명령을 이행하지도 않을 수 있어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각을 다루는 위급한 사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해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명확한 지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윤 대통령이 계속 군을 통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국방부도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도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전망이다.

장관 직무대행인 김 차관은 전날 저녁 전국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 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학 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 단 위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 범	유아교육과	8	2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www.kwangshin.ac.kr